

9월 14일 일요일, 『엑시빗』 1호 참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동체를 모색하며.

* 1호 참여자 김지영, 안수민 님은 개인적인 일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응해 주신 분들, 아쉬운 마음 나눠 주신 분들께 아울러 감사 인사 전합니다.

3. 우리 동네 (1) – 프리즈와 미술 관광지 (으악!)

강재영, 강지웅, 고근호, 이연숙(리타), 표민홍, 허호정, 황웅태

호정 이 시즌, 프리즈-키아프-아트워크 주간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 어떻게들 보내셨는지부터 시작해봐도 좋고요.

지웅 프리즈 시기, 아트 워크에 전시가 진짜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소식을 저장을 해놨었어요.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보러 가려고. 또 퍼포먼스 같은 거는 이제 한 번 밖에 안 하니까. 어떻든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리스트업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에 포기를 하고, 대부분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이미 SNS로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진짜 바느질해 놓은 것처럼, 스토리 막 엄청 업로드 돼 있고...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다 보니 지쳐버리더라고요.

프리즈 기간 관련 행사는 “아르코 데이” 행사만 갔어요.¹ 친한 동료가 아르코 대극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보러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과 호화로운 케이터링이 있어서 놀랐어요. 전 초대된 관객이었을 뿐인데 이름표 걸어 주시고 그런 것도요. 그렇게 큰 행사인 줄 몰랐어서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무대도 너무 크고, 와 이거는 엄청나다....

사실 연극 무대 위에서 미술 작가들이 뭔가를 보여 본 경우가 드물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진짜 쉽지 않은 행사이겠다 싶었어요. ‘아르코 데이’ 참여 작가 중엔 그나마 (무대와) 친화력이 있는 영상, 퍼포먼스 매체를 주로 다루는 작가도 있었지만, 다른 매체를 다루는 작가님들은 진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큰 무대를 채우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걱정 반. 제가 왜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그냥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다 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 PT나 아티스트 토크와는 다르게 퍼포머티브한 면을 강조하는 행사였거든요. 작가의 기존 작품을 알고 있는 경우라 그럴 수 있지만, 그 맥락과 다소 거리 있는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뭔가 떨어지는 해상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급하게 만들어진 신작에서 벌어진 틈새도 보였고요.

“짜잔” 하는 식의 진행도 어색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실까요? [쇼 처럼요?] 네, 뭔가 쇼처럼 진행이 됐어요. 작업을 선보이기 전에 미리 MC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작가가 나와서 1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럼 MC가 달려나와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어 받고요. 결국, MC가 진행하는 쇼에 작가들이 패널처럼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비주류 작가들”, 프리즈의 상업적인 흐름에 “반하는” 위치에 있는 젊은 작가들을 모시고, 아르코가 서포트를 했고, 그 작가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소개도 부적절했고요.

민홍 & 연숙(리타) “비주류” 이런 표현 너무 문제적이네요.

연숙(리타) 저는 일단 지웅님의 이야기를 여행기처럼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면서 들었는데요. 저 역시 작년에 아르코의 초대로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와 그 마무리 과정에 여러 일이 있었어요. 암튼 올해는 훨씬 더 버라이어티한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 같네요.

웅태 많은 분이 프리즈에 어떤 외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지웅 행사 끝나고, 극장 뒤편에서는 막걸리와 직접 부친 전을 내놓고 파티를 진행했어요.

민홍 이것이 한국이다?

연숙(리타) 저는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현대 갤러리가 이번 프리즈 기간, 삼청 나잇에 굿을 했다고 생각해요.² 작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제시 천 작가가 굿과 유사한 제스처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거든요. 그걸 보고 다수의 외국인 관객이 열광하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하고요. 그런 반응에 힘입어 이번엔 정말 ‘굿’을 연 거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르코 데이”를 비롯해서, 국공립기관에서마저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재영 결국, 프리즈 기간 열린 행사를 대부분이 작가를 위한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호정

정말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앞서 나눈 대화들의 연장에서, 동료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거기 가지 말라’라든지 ‘그 행사 이상하다’라든지 하는 말을 꺼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고요. 그게 쉽지 않기도 하지만요. 연숙님이 앞서 어떤 경우엔 동료 작가를 ‘산재의 현장에 내모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자신을 한 번 더 노출시키겠다’거나 혹은 ‘거기서도 작게나마 어떤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작가적 선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죠. 결국 개인의 선택에 그 걸 맡기겠다,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되거든요. 내가 관객으로서 막상 거기 앉아있다 생각하면 오글오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지만, 가겠다는 친구를 말리지는 못하는. 이 이상한 형국.

프리즈-키아프-아트워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저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모델을 모두가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잖아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나와 우리를 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 번 더 타자화하는 일에, 이중삼중 몇 종의 타자화에 이다지도 무심할 수 있나? 어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웅

“아르코 데이”가 스스로를, 뭔가 프리즈 중심의 상업성에 반하는 “대안적인” 행사라고 말하고 타자화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적인 것 같아요. 제목도 “긴 꼬리”라고 지었는데, MC의 설명으로는 ‘긴 꼬리’가 경제학 용어라고 해요. [잘 팔리는 상위 20%가 매출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긴 꼬리, 안 팔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뜻.]³ 어떤 용어 정의를 통해서, 작가들과 (진행자) 자기 자신을 상업적 흐름에 반하는 대안 이벤트의 주체로 상정하고 PR하는 장면이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계속.

연숙(리타)

결국 프리즈 기간에 편승할 뿐이면서, 마치 무슨 대안 담론인 듯 미사여구로 포지셔닝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너무 다 그려지거든요.

웅태

그런데 이 대화가 좀 더 재밌어지려면, 프리즈를 정말 신나게 즐긴 사람이 두 명 정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쵸? 저는 사실 작년 ‘(삼청) 나이’ 거리를 지나갈 때, 그래도 (참여한 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표정이 굉장히 밝다고 느꼈어요. 물론, 밝은 표정의 분들이 절반 정도 계시고, 살의의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있었던 거 같아요. (일동 웃음) 그 시간을 즐겼던 분들, 그리고 또 곤욕을 감췄던 분들이 적절히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얼마간 시장에 걸쳐 있는 한 작가님이, “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미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호정

사실, 민홍님이랑 오늘 모임에 앞서서 얘기 나눌 때,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프리즈를 좀 더 즐기고, 프리즈 자체에도 그를 둘러싼 행사들에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었죠. 저는 거기에 분명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단 1호 참여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서도 재밌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도 또, 이 시즌, 이 분위기, 이 현상 ‘정말 싫다’는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이 시즌, 프리즈 서울 중심으로 미술계가 움직이는 현상에 ‘싫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게 더 희소한 거 같아요. 싫다거나, 어느 정도 부끄럽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은 거의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고. 거기 의문을 던지는 사람은 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싫다 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전 했던 거 같아요.

어떻든 말이 나왔으니, ‘프리즈’에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프리즈는 무엇인가? 프리즈가 왜 특별한가? 애초에 프리즈는 유럽의 나름 신진 페어로서, 젊은 작가들 그리고 기존 상업 씬에서 보여준 결과 다른 유형의 작업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했다고 하죠. 실제 페어 외에도 다른 부대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프리즈 시작부터 성격을 그렇게 가졌다 보니까, 이게 서울로 들어오면서 그 성질을 더 뻥튀기하게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너희 비영리 공간인 것 알지만, 우리와 그냥 축제를 즐기는 거야’ 하는, 논리가 먹혀 들기 용이해진 거죠. 제안을 받는 쪽에서도,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기가 애매해지고요. 노골적인 ‘상업성’과 거리두기 할 여지를 이미 만들어주고 접근하니까요. 프리즈를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미 대부분이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중이라면, 정말 문제 아닌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요. 프리즈 자체의 “추구미”가 있는 것 같다, 프리즈는 스스로가 되게 공공적이고 대안적이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웅

이렇게 큰 자본의 흐름에... 모두가 탑승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순간엔 자본이 되게 게걸스럽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프리즈 서울, 마지막 날에 갔었는데요. 프리즈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작으로 임영주 작가님 작품을 다루더라고요. 상업적인 맥락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뮤지엄에서 다뤄질 법한 작품과 작가를 계속 조명하고 뮤지엄 어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질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작가 인터뷰는 각종 쇼츠로 편집해 바이럴 광고하고, 명품 기업 후원 붙여서 콘텐츠를 만들고... 결국 사고 파는 게 본질인데, 작가 조명 측면에서는 뮤지엄의 어법을 가져와 포장하는 게 너무 노골화 됐달까요. “독립” 큐레이터들이 프리즈 행사를 소개하면서 뭔가 대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본이 뭔가를 동원하는 방식이... 게걸스럽게 느껴졌어요.

페어가 공공 뮤지엄 또는 대안의 언어를 가져와서 이 모든 걸 엄청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는 면이 있다면, 반대로 미술관에서도 상업 씬의 맥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

에서 프리즈가 그렇게 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욕망이 뭔지 보이니까.

근데, ‘미술관’에서, 예를 들면, 『론 뮤익』 전시에서 인플루언서 데이를 열고, 그들에게 선물 키트를 가져가게 하고, 인스타그램 업로드 용 이미지 만들어서 바이럴 전략을 쓴다든지… 그런 적나라한 노력들이 결국 ‘성공’과 ‘자랑거리’가 되는 이 상황이 난감하달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가속화한다면, 기관이 기관의 뒷을 자본의 흐름 쪽으로 가져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액시빗』 1호에 『젊은 모색』 전에 대해서도 썼지만, 이런 식으로 기관을 두드리는 시도가 정말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변화가 정말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연숙(리타)

『론 뮤익』 기획하신 흥이지 큐레이터의 인터뷰를 읽었는데요.⁴ 대중과 예술의 만남을 위한 일종의 콜라보 전략을 쓰신 거더라고요. 국현은 앞으로도 또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포부가 담긴 인터뷰였고, 그걸 보면서는 우리가 기관에 뭔가를 교정하길 기대하고 또 어떻게든 바꿔기를 기대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지웅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정한 노선을 정해버린 듯한 기관에 대해서, 그의 변화를 의식한 반(反)기관 전략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냥 하던 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행 중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렴 한국에서 제일 큰 국공립 기관으로서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 차원을 요구하고 잘못된 것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일은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연습도 해야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정

그러게요. 교섭이 불가능한 대상을 대하고 있는 상황.... 앞서서 근호님이 미술계 안에도 여러 동네들이 있고, 각 동네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네’들의 차이를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상이한 동네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다 이게 맞닿는 지점이 있네요. 다른 동네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동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재영

듣다 보니, 미술계의 IMF가 찾아왔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 알아본 바로는, 미술진흥법에 미술진흥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정해 놓은 세칙이 있어요.⁵ 이에 따라 지금 정부가 삼은 기조는, 문화예술 예산을 전체 정부 예산의 1%에서 3%로 지금 올린다는 것이고요. 세세하게 미술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한국 미술 시장은 전 세계 미술 시장 규모의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앞서 얘기 나왔지만, ‘예경’이 아트워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키아프 대표가 당당하

게 정부에 돈 달라고 인터뷰하는 이런 상황은 다 정해진 수순일 테고요. 이미 결정 기관들과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지금껏 이야기 나눈 내용의 동어반복이긴 하지만, 이 흐름은 계속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는) 구조조정 당할 것 같아요. 뭔가 저항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일까? 기금을 따내는 것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걸 해킹해서 살아남는 그런 종류의 방법 밖에 안 남은 것일까?

프리즈 갔을 때의 개인적인 감상은, 미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한 것이었어요. 기대감이기도 하고 박탈감이기도 한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요. 내가 놀라며 맞이했던 '200명'의 많은 관객과 대비되면서.... 키아프만 해도 관객이 뭐 8만 명 왔다고 하던가요?⁶

연숙(리타) 관객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재영 그렇기도 하죠. 이 '키아프리즈'라고 하는 행사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 안에서 프레젠팅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미술'이 프로모션이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다만 그 방향이 상품 논리에 따른 성과와, 숫자로만 판가름 난다는 게 문제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상의 데이터로만 산출이 된다면, 씬이 구조조정 당할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호정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어떤 평가의 기준이 좁혀서 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술관이 어떻게 더 공공의 방향으로 나갈지를 논의하는 자리는 항상 있어 왔다지만... 이제 그 공공성을 수치상의 '대중 유입'이라는 기준으로 가져가고, 어떤 의미에서의 진정한 '공공성'은 차치한, 다른 걸 본격 추구하겠다는 건데요.

연숙(리타) 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 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무원 조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대중 평가, 즉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원'이라는 대타자를 내세워서 작업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고 검열하는 광경들이 일상적으로 목격되거든요. 작가들 만나서 대화하면 이런 종류의 성토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저 역시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검열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때, 검열이라는 게 '금지' 식의 명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에게 'C 작업 너무 좋은데, B 요소를 좀 추가하고 D 요소를 누그러뜨려 주시면 어떨까요?'라는 식으로요. 마치 서브웨이 샌드위치 주문하는 것 같은 종류의 얘기들을 듣곤 하는데, 이때 B 요소가 작품의 내용이나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언급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원을 의식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구조조정" 논리를 대입해보자면, 그런 요청에 응해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 있는' 작가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작가는 사장된다, 라는 결론이 가장 암울한 거죠. 우리가 우리 영역을 잘 좀 보존

하고, 그런 요청을 의식하지 말아야 할 필요도 좀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국현' 전시 들어갈 생각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안 붙여줘도 상관없다는 태도 말이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미술에서 대민 서비스 제공의 구도가 가속화됐다는 판단이 들고, 이에 따라 작가들이 거친 작업을 하는 걸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같은 이유로, 정말 하고 싶은 걸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주저 없는 태도를 만날 때 감동받는 지점이 분명 있어요. 반대로, 점점 더 특정한 자본 논리가 서울 미술 쓴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걸 내재화하는 작가들이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말하자면,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 들어갈 수 없는 작업, 기관용이 아니면 판매용 작업... 이런 식의 눈치 논리가 지배적인 게 진짜 현실인 것 같아요.

차갑게 말해서 '다들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치를 붙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먹히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되니까요. 영역들이 흡수병합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먹힘 당하고 어느 순간 버려지는 일도 있을 테니까요.

호정

전 사실, 오늘 대화하자고 약속 잡아놓고 한동안 멍하게 있긴 했거든요? 키아프-프리즈-아트워크... 한 주가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피로감이 너무 밀려와서,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접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만나서 이렇게 얘기 안 나눴으면, 또 그냥 지나갔겠구나... 심지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어느덧 내년 9월이 와있을 거고, 그러면 또 똑같은 거 할 거고. 이제 모두가 그 패턴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고 무섭더라고요.

'대안성'을 말할 수 있는 여지나 기회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게 엑시빗이라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제 이름 옆에 붙은 큐레이터라는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걸로 뭘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던 중이에요. 한편으로는, 상대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자체로 같은 패턴에 속하게 되리라는 것도 자명해 보였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알겠고요.

연숙(리타)

맞아요. 뭔가에 반(反)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 힘이 센 쪽에 다른 한 쪽이 딸려가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힘의 장력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연결과 연쇄의 고리를 끊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정말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웅태

휩쓸린다는 말을 꺼내 주셔서, 저도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프리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력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가담자로서의 주체들도 있지만, 휩쓸리는 주체들도 많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전시를 하게 됐는데, 특정 '나잇'에 맞춰 오프닝 시간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이건 작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획자나 공간관계자 등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관

계적인 차원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훨씬 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개인이 본인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근호

프리즈, 아트워크 ... 열리기도 전에 지하철 여기저기 이미 광고되어 있고... 자처해서 미술 씬을 관광지로 만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계속 있었어요. ‘삼청나잇’, ‘을지나잇’, ‘한남나잇’⁷에 맞춰 그 많은 전시가 열리는데, 이날 여기 여기 저기 갔다, 체크, 체크, 체크.... 이런 연쇄만 있을 거라는 게 상상이 됐어요. 마침, 제가 기획한 전시가 아트워크 기간에 딱 껴 있었는데요. 전 그 체크하는 느낌이 싫기도 하고, 전시 운영일이 아닌 날에 열어야 하는 부담도 있어서 (제안이 왔지만) ‘을지나잇’ 참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프리즈 열리기 전에 엄청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근데 마침, 한남나잇 때, 아는 작가, 기획자의 전시 오프닝이 있어서 같은 날 그 일대를 돌아다니게 됐어요. 물론, 안 좋은 순간도 있었죠. 같은 날, 리움 VIP 오프닝이라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작업을 다 볼 수가 없었어요. (원래 초대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품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 나처럼 그냥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훔쓸려 다니는 건가? 이런 의문... 그러면서, 내가 여기 속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다는 생각.

근데 또, 그런 생각하면서 같은 날 또 다른 전시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선 있을만한 거예요. (웃음) 이게 또 그렇게 나쁜 건가? (일동 웃음) 프리즈 기간에 오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여기고 상상을 하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 드는데, 또 개개인이 전시 찾아다니고 작업 보고 행복한 표정인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 미술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렇게 다 열심히 돌아다니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관광지’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여기를 관광지처럼 만드는 게 싫었는데, 마냥 싫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결국, 제일 나쁜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하는 지금의 서울이 아닌가? 프리즈 기간에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이 제일 문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 행사 하나 때문에 온 주목도가 쓸리고, 거기 맞춰서 행사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리적이라 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프리즈가 없는 게 나을까, 생각하면 ... 심지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프리즈 서울이 시작한 지 몇 년, 결국 서울 미술 씬에 프리즈 밖에 없는 듯 한 이 감각이 제일 싫다... 만약, 이걸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완전 끊어버린 동네가 있다면, 이렇게 빽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호정

그 동네를 만들어보죠...! 근호님 얘기 중에, ‘이거는 좋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게 사

실 어떤 장력이잖아요.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프리즈 필름 프로그램을 하거나, 국립현대예술관 마당에서 그 기간 맞춰 마켓을 연다든가. 어떤 잣대가 훈들리기 쉬운 상황이죠. 누군가는 ‘아, 공공을 위한 뭔가가 많이 열리는구나’하게 되는 것. 그게 장력의 핵심이니까. 그게 너무 문제적으로 중요한 지점 같아요.

연숙(리타) 근호님 얘기 중에 ‘관광지’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경험의 과정이, 정말 현지 주민이 관광지에 적응하는 과정과 같아요. 관광지 되고 나서 적응하려다 보니, 막상 동네 주민들도 돈도 좀 벌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본도 도는 것 같고 활기도 좀 생긴 것 같다, 사람들도 기분 좋아 보이는데 내가 투덜거릴 필요가 있나? 너무 투덜거리지 말자, 라는 판단이요. 이런 상황에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관광객 말고 현지인도. ‘관광지에서 어떻게 놀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근호 프리즈 기간 아닌 때 재밌는 걸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4. 우리 동네 (2)」에서 계속 ...

- 1 아르코미술관 프로그램 페이지 참고: <https://www.arko.or.kr/artcenter/board/view/522?bid=649&cid=716390>
- 2 9월 4일 저녁 10시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만신 김혜경의 <대동굿-비수거리(작두굿)>에 관해서는 아래 갤러리현대 홈페이지를 참고. “Gallery Hyundai Presents Korean Traditional Gut Performance for Samcheong Night”: <https://www.galleryhyundai.com/story/view/20000000482>
- 3 “긴 꼬리”,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8%B4_%EA%BC%AC%EB%A6%AC
- 4 흥이지 큐레이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시 흥행 이유로 세 가지 바뀐 흥보 전략을 꼽았다. “1. 안 보면 대화에 낄 수 없는 전시를 만들자(...) 2. ‘작품 뒤’를 많이 보여주자(...) 3. K-전시 관광객을 잡자(...)”: 이하 @folin_co 인스타그램 게시글 참고: https://www.instagram.com/p/DM_bGFRMc_E/?utm_source=ig_web_copy_link
- 5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박경신, 「미술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역할」, 월간미술 웹 사이트: <https://monthlyart.com/portfolio-item/미술진흥법의-주요-내용-및-역할/>

6 박의래 기자, “미술 장터 ‘키아프리즈’ 마무리...서울, 세계 미술 중심지”, 『연합뉴스』(2025-09-07):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7042551005>

7 프리즈 서울 웹페이지 참고. “프리즈 위크 서울 2025, ‘Neighbourhood Nights’가 선사하는 특별한 예술의 밤”, <https://www.frieze.com/ko/article/frieze-seoul-2025-neighbourhood-nights-celebrating-frieze-week>